의령 정곡배수장 등 13곳 이중화선로 구축

하청일 기자 | 승인 2023.03.07

> 농어촌공사, 정전 따른 침수피해 방지 목적
> 한전 협업…국비 40억 원 들여 올해 마무리

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는 태풍·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정곡배수장 등 13곳에 전기 이중화선로를 구축한다.

이중화선로는 배수장 가동 중 태풍 등으로 말미암아 한전 선로나 변전소 등 고장에 의한 정전사태가 발생하면 긴급히 예비선로로 전원을 공급받아 배수장을 가동함으로써 정전에 따른 침수를 방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.

의령지사는 작년 의령 지역에 연이은 태풍(힌남노, 무이파, 난마돌)과 집중호우로 농업분야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가 점차 커져 이중화선로 구축으로 선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.

이에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정곡배수장 등 13곳에 국비 40여억 원을 투입해 올해 안에 이중화선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.

또한, 의령지사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자연재해에 대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, 의령군과 공조 유지, 피해발생 시 신속 복구 등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춘다는 방침을 세웠다.

이경 의령지사장은 "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뭄과 폭우 등 이상기후·자연재해 강도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"며 "이번 이중화선로 공사로 자연재해 예방과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"고 말했다.

/하청일 기자

저작권자 ©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하청일 기자